

CIS 국가간 금융관계*

-- 특성 및 발전전망 --

홍성원

1. 머리말

CIS 국가들은 현재 교역, 화폐, 신용 및 결제부문을 포함한 모든 경제분야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부문에 걸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지배적이다. 경제적 주도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러시아와 나머지 CIS 국가들간에 경제적, 정치적 이해가 계속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 관계가 CIS 공간에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현재 CIS 국가간에 형성된 화폐 및 결제 분야에는 과거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요소와 아울러 새로이 형성 중인 메카니즘이 상존하고 있다. CIS 각국의 시장관계는 오랫동안에 걸친 지령-배분경제 이후에 다시 생성되고 있고 금융분야는 겨우 수년전에 국가금융제도로 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CIS 국가들의 경제구조는 자연적으로 자율적인 화폐-신용 및 금융부문의 발달을 저해했고, 또한 거시경제정책상의 주요 수단인 화폐 및 금융정책도 효율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생산 및 유통분야의 시장관계가 확대되면서 이에 걸맞게 새로운 신용 및 은행제도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의 제도들이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CIS 국가간에는 화폐 및 금융부문에서의 공통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없다. 그렇지만 각 공화국 고유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해 볼때 CIS 국가간에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¹⁾ 긴 역사를 통해 형성된 구소련 공화국들 내부의 유사

* 이 논문은 95년 1월에 작성되었으므로 9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상황이 변경되었음을 밝힙니다.

1) Геннадий Рыбалко, "Денежный механизм СНГ: становле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облемы

한 여건들로 인해 CIS 역내 공동의 화폐-금융메카니즘 사용으로 상호 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 CIS 공간에서 공동의 화폐-금융제도를 사용한 경우 상호결제에 있어서 경화 수요가 현저히 줄고, 국가간에 신용제공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화폐들을 안정화시키고, 상호 태환화로 신속히 이행시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도 존재한다. 러시아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정치적, 경제적 사유로 인해 다른 CIS 국가들에게는 공동의 화폐-금융메카니즘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약하고, 발전이 뒤진 국가들이 더 인정되고, 발전된 국가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각 국가들마다 내부적으로 금융위기, 인플레이, 생산하락등 경제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CIS 국가간 상호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현재 CIS 각국은 독자통화를 도입한 상태이고,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외무역 및 결제원칙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CIS 회원국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과거 단일 경제공간의 기능과 유사한 그러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과정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CIS 구성원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역, 화폐, 신용 및 지불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농 논문에서는 루블존의 현 상태 및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CIS 국가들의 국가화폐 도입분제와 상호 지불-결제분제를 다룬다.

II. 루블존 내부의 분열

1992년 초부터 러시아와 다른 CIS 국가와의 경제적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러시아는 다른 CIS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구 소련화폐 및 신용제도의 실제 계승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주장했고, 다른 CIS 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에 불만족스러웠지만 러시아에 계속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러시아는 구소련방의 법적 계승자로 행동하며 루블존의 화폐발행제도를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화폐 및 신용분야에서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상황이 초기부터 러시아와 나머지 CIS 국가들의 경제이해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양측 모두 자국의 경제이익을 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 점차 단일의 소련 루블공간이 독립된 15개의 국가화폐공간으로 분할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²⁾

1992년 10월 비쉬켈에서 루블을 법정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통화제도와 통화-신용 및 외환정책 단일화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9개국으로 구성된 루블존 설립이 규정되었는데 9개국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까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따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크스탄이 포함된다. 루블은 이들 9개국 영토내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법적 지불수단으로 공포되었다. 가입국들은 루블의 안정성 유지에 상호 책임을 지고 각기 예산, 조세, 통화 및 신용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상호결재 균형 및 루블의 대환화 달성에 노력해야 했다. 1993년 1월에는 상기 9개국 참가하에 '국가간 은행설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 협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루블존을 위한 단일화폐구상 채택이 어렵게 되었다. 첫째, 공화국들은 예산적자한도 설정 등 주요 금융정책결정에 있어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된 국가들이 경제위기가 더 극심한 국가로부터의 인플레이수입에 직면한다. 셋째, 중앙아시아 일부 공화국,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 및 몰도바 등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관계면에서 근접한 루블존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³⁾

최근까지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대부분 CIS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기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경제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CIS 국가중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및 까자흐스탄의 경제는 아직도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시장개혁은 다른 CIS 국가에 영향을 계속 미친다. 그러나, 다른 국가정부들은 중앙규제로도 그들 경제에 대한 러시아 개혁의 여파를 완충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⁴⁾

1992년에 시장개혁 수행과정에서 러시아의 금융정책에 따르길 거부했던

2) Шивков Ю.В., Евстигнеев В.Р., "Реинтегр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опыт западной европы", ИСЭМО РАН, 1994, pp.46-48.

3) Ibid., p. 49.

4) Баковецкий О.Д., Кочетов Э.Г., Святенко Б.М., "Денежно-кредитные и расчетно-платеж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СНГ: проблемы 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блем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Вып.5, No. 2, 1994. p. 70.

CIS 국가들은 당면한 심각한 사회, 경제문제 해결 및 그 여파 완화에 주력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화폐공급을 축소시키는 긴축 화폐정책은 생산하락, 실업증대 및 임금지불지연을 초래한 반면, 확대 화폐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따라서 CIS 국가들은 생산하락을 최소화시키고, 통합된 경제체제를 보장하고, 인플레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신축적인 복합정책을 취해야만 했다. 이들 국가들은 그러한 경제정책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국 CIS 틀 내에서 상호 정책을 조정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실제 CIS 국가들은 상호간 경제정책 조정시 특히, 화폐, 신용 및 금융관계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⁵⁾

III. CIS 국가간 지불·결제 및 신용관계

1991년 12월 연방붕괴 전까지만 해도 소연방 국영은행(Gosbank)은 비록 비효율적이긴 했지만 구소련 전역에 걸쳐 완전히 통합된 지불 및 결제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1991년 11월-12월 동안 국영은행을 포함한 연방 금융기관이 사라진 후 지불 메카니즘은 분화되기 시작했다. 공화국 기업들간의 지불은 더이상 직접 현금결제소(Cash settlement centers)간에 청산될 수 없었다.⁶⁾ 따라서 공화국간의 모든 非현금지불은 공화국 중앙은행의 쌍무간 커레스계좌를 통해서만 결제되었다.⁷⁾

그러나 이 제도는 결제를 2-3개월간씩 지연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의 미지불위기를 초래했다. 각 공화국 기업가들의 압력에 못이겨서 CIS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미지불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공여 확대, 국영기업 유동자본의 재평가, 기업 상호간 채무변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⁸⁾ 불행히도 이러한 조치는 미지불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대규모 신용

5) *Ibid.*, pp. 70-71.

6) IMF, "Common issues and interrepublic relations in the former U.S.S.R.", *Economic Review*, April 1992. pp. 8-9.

7)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존내 공화국들의 화폐발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공화국간 결제를 집중화시키려 했다.

8) Volodimir R. Sidenko, "The emergency of new finance and banking systems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and the problems of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them", Institute for world economics,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Working Papers*, No. 14, Feb. 1993. pp. 14-17.

발행과 유동자본재평가로 인해 두번째의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⁹⁾

각 공화국의 중앙은행들은 러시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루블신용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CIS 국가의 기업들은 이 신용을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추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1992년 상반기동안 3400억루블(미화 22억달러 상당)이 공화국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던 러시아 중앙은행은 1992년 7월 1일부터 다른 CIS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정책을 변경하여 신용제도 및 비현금화폐유동을 구분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간 모든 결제는 반드시 러시아 중앙은행에 있는 공화국 국립은행 커레스계좌의 잔고한도 내에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쌍부 커레스계좌 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공화국들이 러시아에 수출한 액수만큼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쌍부계정이므로 일개 공화국과의 무역지자를 제 삼국에 대한 흑자로 지불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¹⁰⁾

결과적으로 공화국 자체의 신용발행은 중지될 수 밖에 없었고, 각 공화국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해 공화국 파트너들에게 소위 "기술신용"¹¹⁾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2년말까지 러시아의 전 공화국에 대한 총기술신용 한도는 2150억루블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커레스계좌 도입이후 첫 삼개월 동안에 러시아의 원조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되었던 기술신용한도는 초과되어 3100억루블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해 다른 공화국들에게 제공된 총신용액수는 1992년에 1.5조 루블 (러시아 GDP의 8%)로 물질적 가치의 실제 구매력으로 측정해 보면 760억달러에 상당했다. 공화국들의 자체 신용발행은 러시아의 내부인플레이 유발원인 가운데 25%를 차지했다.¹²⁾

기술신용제공을 통한 금융원조가 부작용을 초래하자, 1993년 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다른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공화국에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비현금신용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자 했다. 그 액수는 1993년 7월까지 약 1.5조루블이었다. 러시아가 까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크스탄에

9) 첫번째 대규모 인플레이션은 1992년 1월 1일 러시아정부의 가격자유화조치직후에 발생했다.

10) Известия, 1992년 12월 16일.

11) 특별히 러시아상품구매용으로 타 CIS 공화국에게 러시아가 제공하는 신용을 뜻한다.

12) Известия, 1993년 9월 16일.

제공한 루블현금액수는 이들 국가 GDP의 45-70%에 해당되었다.<表 1참조> 그러나 이 공화국들은 현금루블을 임금지불에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로부터의 상품 및 원재료 구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러시아로 다시 루블이 역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실상 이 신용은 다른 CIS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부상공여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 表 1> 러시아의 루블존 국가들에 대한 금융원조(공화국 GDP대비%)

국가명	1992년	1993년 7월까지
우즈벡스탄	69.2	52.8
카자흐스탄	25.1	48.8
투르크메니스탄	67.1	45.7
타지스탄	42.3	40.9
끼르기즈스탄	22.6	23.9
아르메니아	53.2	19.7
벨라루시	11.9	8.8
몰도바	17.0	6.1
우크라이나	23.7	1.9
아제르바이잔	20.8	-

출처: Известия, 1993년 9월 16일

1993년 5월 러시아는 다른 CIS 국가들과 미지불상태인 1992년 기술신용을 국가채부로 전환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1993년 하반기에 CIS 국가들에 대한 기술신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의 추가신용은 정부간 협정에 따른 대부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¹³⁾

한편 러시아는 1993년 하반기에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CIS 국가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기도 했다. 1993년 10월에 몰도바에게 500억루블을 공급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액수중 상당부분은 러시아産 원유 및 원유제품구매에 사용되었다.¹⁴⁾ 이러한 신용제공 배경에는 주로 러시아 연료산업복합체의 경제적 이해가 설려 있었다. 1993년 11월에

13) Баковецкий О.Л., Кочетов Э.Г., Смытненко Б.М., *Op. cit.*, p. 71.

14) Финансовые известия, 1993년 10월 29일.

는 파직스판에 국가신용을 제공하는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었다.¹⁵⁾ 이 경우는 주로 러시아의 군사, 정치적인 이해를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사례였다.

전반적으로 1993년 중반부터 러시아로부터 다른 CIS 국가에로의 금융유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러시아 재무성은 1993년 하반기 부분론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전체 신용량을 8000억루블로 설정했으나 3-4분기 사이에 다시 규모를 4000억루블로 하향 조정하고, 이와 관련 향후 공화국 중앙은행들의 거래계좌를 통한 결제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¹⁶⁾ CIS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기술신용채무를 국가채무형태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1994년 러시아 예산에 1조루블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¹⁷⁾ 1992년에 부분론 메카니즘이 우선적으로 CIS 국가간 결제에 이용되고, 지불보장을 위해 기능했다면, 1993년에는 인근 CIS 국가로부터의 비현금 루블 유입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해야만 하는 다른 과제가 등장했다.

1993년 9월에는 소비자가격상승 가속화로 인해 러시아 재무성은 부분론 개혁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화시켰고, 무이자 기술신용 및 공화국 중앙은행들에 대해 설정했던 신용발행량 유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말까지, 즉 실제 부분론의 붕괴시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책의 혼란은 상당부분 재무성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시각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통제지역을 확대하고, CIS 국가 화폐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력 확산에 주력한 반면, 재무성은 금융안정화가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이므로, 화폐통합을 강화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무익하고 심지어 해를 끼친다고 보았다.¹⁸⁾

CIS 국가간에 정상적인 결제제도의 기능을 보장하고 러시아 경제의 금융안정화를 이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공통의 루블이 아닌, 러시아 루블이 유통되는 새로운 부분론 메카니즘이 필요했다.

IV. 러시아의 화폐개혁 및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

1993년초 이래 러시아 영토 내의 통화는 주로 1993년도에 러시아 중앙은

15) Финансовые известия, 1993년 11월 26일.

16)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3년 10월 28일.

17) Деловой мир, 1994년 3월 3일.

18) Бишков Ю.В., Евстигнеев В.Р., *Op. cit.*, p. 61.

행이 발행한 루블로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에 접수된 1961-1992년도 발행 구 소련 국영은행(Gosbank) 및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폐는 환수조치되었다. 1993년 7월 중순까지 러시아 연방에서 발행되었던 구화폐 중 2500억루블만이 유통되었고 환수조치된 화폐 중 일부는 舊루블이 계속 유통 중이던 까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따지스탄, 아르메니아에서 그들의 현금 수요로 충당되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93년 7월 중순까지 1993년도 은행권을 적당량 공급, 유통시킨 후 1993년 7월 26일을 기해 1961-1992년도에 발행된 舊루블지폐의 러시아내 유통을 전면 중지시켰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화폐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른 CIS 국가들의 무분별한 루블신용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 파급효과를 억제하고, CIS 경제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1993년 하반기에 러시아로부터 다른 CIS 국가들에 대한 기술신용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현금유통에서 이전의 연방루블이 새로운 러시아루블로 바뀌게 되었다. 러시아내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구루블은 다른 CIS 기업가들에게도 가치를 상실했다. 즉 이들은 더 이상 러시아기업과의 결제에서 구루블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¹⁹⁾ 러시아의 루블현금 공급은 구조연방 공화국과의 정치, 경제교류시 종종 협상의 주요 카드로 이용되기도 했다.²⁰⁾

1993년 7월 26일 이후 루블존내 다른 CIS 국가들은 루블을 이용하는 기존 화폐제도의 조건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독자화폐를 도입해야만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했다. 루블을 포기한 후 도입된 CIS 국가들의 임시화폐는 단지 잠정적인 통화였고 그 구매력은 꾸준히 하락했다. 초기에 일부 국가는 실제 국가화폐를 도입하려 했지만, 화폐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 안정을 이룩해야만 했다. 1993년 7월 이후 일부 국가들은 이미 독자 국가화폐를 도입하는 중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1961년-1992년의 구루블을 계속 유통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3년 8-9월중에 루블기근을 겪은 루블존 국가들은 서둘러서 러시아와 협정체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9월 7일 까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크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및 따지스탄 총리 및 국영은행 총재들은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 실립을 위한 실제조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 연방의 루블은上記 국가들 영토내의 합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공동의 화폐제도를

19) Блаковецкий О.Д., Кочетов Э.Г., Смятненко Б.М., *Op. cit.*, p. 73.

20) Шиков Ю.В., Евстигнев В.Р., *Op. cit.*, p. 62.

시행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²¹⁾

협정은 총 14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조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루블존 참가국 경제정책 주요변수의 일치, 즉 관세, 조세, 예산, 은행 및 외환법상 주요 원칙의 단일화와 참가국간에 상품, 자본, 노동력의 자유이동 보장 및 통화-신용정책의 단일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현시킨 후에 공동 통화제도로의 이행절차는 러시아와 해당 국가간의 쌍무간 협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1조). 이행기간동안 既 사용중인 국가통화를 공동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참가국들은 독자화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2조). 또한 러시아 루블에 대한 공화국 화폐 환율의 안정성 유지가 보장된다. 일시적 조치로써 참가국이 독자화폐를 도입할 경우 구루블이 법적 지불수단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국가들 영토내로 구루블지폐를 반출시키지 않는다(4조). 참가국들은 제 3국 통화에 대해 단일정책을 취하고(6조), 非교역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국가화폐를 판매한다(8조).

그러나, 러시아가 1961년-1992년도 구루블 유통을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계속 구루블을 사용했다. 까자흐스탄과 우즈베크스탄은 러시아에게 그들 국가내에 유통중인 1961년-1992년도 구루블을 환수하고 1993년도에 발행된 러시아 루블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 러시아는 이들 양국에게 화폐제도 통합때까지 루블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지만 다음과 같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행을 요구했다. 즉 루블신용은 통상 시장이자율로 6개월 기한의 국가채무형태로 제공되며, 신용액수의 50%에 해당하는 공화국의 금.경화 지불보유고를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설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은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1993년말까지 따지스탄과 벨라루시만이 전반적으로 상기 협정의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하면서 러시아 루블을 자국 내부에 유통시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기존의 루블존 국가였던 나머지 아르메니아, 까자흐스탄, 몰도바, 푸르끄메니스탄, 우즈베크스탄 4개국은 1993년 11월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독자통화를 도입해야만 했다.

V. CIS 국가들의 국가화폐 도입

21) Деловой Мир, 1993년 9월 15일.

CIS 국가들의 국가화폐 도입결정과 이행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CIS 국가들의 화폐경제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형성된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화폐관계에 있어서 구소연방 공화국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²⁾

첫째 부류에는 러시아가 속하는데 러시아에는 이미 경제개혁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국가화폐 안정을 위한 경제 전반 및 금융부문의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현 경제이행단계에서 이 부류의 국가는 자국의 화폐-신용분야를 다른 CIS 국가들과 격리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고, 심지어 느슨한 형태의 화폐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둘째 부류에는 우크라이나, 적게는 몰도바,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이 속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이행이 계획 발표 초기단계이고 실질적인 개혁은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가경제도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또한 화폐동맹 같은 형태로 국가주권을 일부 포기하거나, 러시아 중앙은행에 종속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분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있어서 국가화폐도입은 극단적인 시도로 간주된다.

셋째 부류는 이행경제의 초기단계이며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있지만, 외견상으로는 사회, 경제 및 정치분쟁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 또한 개혁이 광범위하게 진전되어 있지만, 인구학적 상황, 지리적 상황, 경제구조나 군사, 정치분쟁의 특성때문에 경제가 매우 위약한 국가들도 있다(끼르기즈, 아르메니아). 이 국가들의 단기간내 경제성장에 관한 전망은 어둡다. 이 공화국들은 아직 상당기간동안은 공동 루블존이나, 국가주권을 부분적으로 제한당하는 러시아 주도의 루블존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벌써 1992년 중반부터 러시아는 금융안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다른 CIS 국가의 통화팽창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려는 긴축 외환-화폐정책을 1993년동안 줄곧 수행해 왔다.

상기 언급된 부류 가운데 벨라루시는 예외이다. 벨라루시는 자국의 화폐제도를 러시아와 통합하려고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경제동맹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22) Шижков И.В., Евстигнеев В.Р., *Op. cit.*, pp. 53-54.

까자흐스탄은 1993년 11월 신국가통화단위인 “텐게”(tenge)를 도입했다. 초기에 루블대비 교환율은 1: 250, 미국달러에 대해서는 4.74: 1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표 2참조). 텐게의 對달러 및 루블 경매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한편 까자흐스탄은 국가통화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개입용 금 보유고를 사용한다. 까자흐스탄국립은행 발표에 따르면, 93년 11월중순 현재 금-외화보유고는 723백만달러이고, 그 가운데 금 보유량은 222백만달러이다.²³⁾

우즈벡스탄 정부는 루블존에의 가입전망이 점점 희박해짐에 따라 국가화폐인 “숨-쿠폰”(sum-coupon)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1993년 12월 6일부터 우즈벡스탄 영토내 법적 지불수단으로서 1993년도 루블과 함께 일시적인 지불 보조수단으로 쿠폰을 도입하여 루블에 等價로 만들고자 했으나, 타쉬켄트 압시장에서 초기부터 1루블은 2.5쿠폰으로 교환되었고, 對달러 환율은 1330러시아 루블 혹은 4000쿠폰이었다. 이와 관련 우즈벡스탄 정부는 우즈벡스탄의 화폐제도를 러시아와 통합시키려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까자흐스탄과 우즈벡스탄은 그들의 영토내 국가통화 도입과 관련 1994년도 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상호공약 및 지원협정을 체결했고, 또한 2000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계를 상호 근접시키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간 의정서에 서명했다. 까자흐스탄과 우즈벡스탄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화폐제도 통합에 대한 결정을 위해 많은 사전 연구를 수행했다. 1993년 10월 까자흐스탄은 러시아 화폐제도와와의 통합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설립을 위한 실제조치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양국의 화폐제도 통합이후 러시아 루블을 유일한 법적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고, 까자흐스탄 정부는 의회에 은행업무, 통화거래행위, 관세코드개정에 관한 의안을 상정했다. 우즈벡스탄도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 설립을 위한 실제 조치에 관한 협정” 승인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수행할 것임을 러시아에 통고하고 러시아 루블을 공화국의 공식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까자흐스탄과 우즈벡스탄의 국가화폐 도입은 무엇보다 1961년-1992년도 루블을 국가통화로 계속 사용하고 있던 아르메니아에게 큰 충격이었다. 아르메니아는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루블반출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중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아르메니아는 “드람”(dram)을 독자통화단위로 도입했다. 아르메니아는 신은행권 발행시까지 계속 1961년-1992년도

23) Финансовые известия, 1993년 12월 30일.

구루블을 사용했다(1 드림은 200舊루블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뿐 아니라, 경화신용의 급격한 하락때문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크스탄보다 독자 차가통화를 도입하기가 더 힘이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1993년 11월 “카르보바네츠”(karbovanets)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루블에 대해서는 환율을 평가절상시키고, 미국달러에 대해서는 평가절하시키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대외경제관계를 서구로 재전환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저가로 수입하고, 까르보바네츠의 對달러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의 경화유입을 촉진시키고자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교역적자가 누적되어 이러한 전략은 수정되어야만 했다.²⁴⁾

벨라루시는 1993년 11월 벨라루시은행이 발행한 非현금 벨라루시 루블 및 임금지불권이 영토내 법적 지불수단임을 결정했다. 벨라루시는 CIS 국가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1994년 4월 12일 마침내 벨라루시는 러시아와 단계적인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사실상 벨라루시가 러시아의 화폐-신용정책에 완전히 예속됨을 의미한다.²⁵⁾

1991년-1992년간 발행된 루블은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따직스판에서만 아직도 유통중이다. 러시아는 따직스판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1000억 루블의 신용을 제공한 바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결정은 명백히 따직스판과의 정치적 측면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따직스판의 가입으로 루블존 설립 본래의 구상에 대한 신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²⁶⁾

24) *Ibid*.

25) Шижков Н.В., Евстигнеев В.Р., *Op. cit.*, p. 58.

26) Блеховецкий О.Д., Кочетов Э.Г., Сметиненко Б.М., *Op. cit.*, pp. 76-77.

<表 2> 구소공화국의 화폐단위(1994년 2월 1일 현재)

국가명	화폐단위	도입일	공식환율 1달러당	상업은행환율 1달러당 (구입/판매)
아제르바이잔	manat	92.8.15	118	300/330
아르메니아	dram	93.11.22	100	100/110
벨라루시	rubel	93.11.10	7300	7200/7400
구르지아	coupon	93.4.5	187675	170000/190000
까자흐스탄	tenge	93.11.15	7.52	10/13
끼르기즈스탄	som	93.5.10	9.15	9.15/9.35
라트비아	lat	93.3.5	0.582	0.55/0.65
리투아	lit	93.6.25	3.904	3.92/3.95
몰도바	lei	93.11.29	3.79	3.6/3.8
러시아	ruble		1560	1570/1620
타지크스탄	ruble		1560	-
투르크메니스탄	manat	93.11.1	1.90	10/12
우즈베크스탄	sum-coupon	93.11.15	1560	-
우크라이나	karbovanets	93.11.12	12610	32000/37000
에스토니아	krona	92.6.20	13.92	13.89/13.93

출처: Геннадий Рыбалко, "Денежный механизм СНГ: становле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облем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управления, 2. 1994, p. 33.

CIS 국가들이 국가화폐를 도입함에 따라 러시아 루블에 대한 환율이 정해졌다. 1992년 4/4분기에 러시아는 일부 국가들과 쌍무청산 결제를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 협정에서 처음으로 CIS 국가화폐 혹은 임시화폐의 상호 환시세가 정해졌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및 까자흐스탄 임시화폐의 환율이 모스크바 외환경매 결과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해서 정해진 후 다른 국가들 화폐의 환율은 미국달러를 통한 크로스환율에 의해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졌다. 반대로, 고정된 상호 합의된 환율을 유지하는 우즈베크스탄의 경우, 공화국 화폐에 대한 달러의 환율은 미국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의 환율에 의해 정해졌다.²⁷⁾

여러 러시아 상업은행들의 CIS 新화폐들에 대한 환시세는 대부분의 경우

27) Сегодня, 1994년 4월 19일.

공식환율보다 낮게 결정된다.²⁸⁾ 실제보다 높게 정해진 환율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이들 공화국에 대한 윤택된 신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입장에서 볼때 러시아는 CIS 국가화폐들의 실제 시정환율에 관심이 있다.²⁹⁾

모든 국가화폐에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이직 시가상조이다. 환율시세 유지를 위해 충분한 외화량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경화보유고가 부족하다. 경제와 화폐유통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국립은행에 의해 조절되고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환율을 도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환율은 아마도 시장환율보다 몇배 더 낮을 것이다. 이 환율은 투자목적으로 사용되고 외사유치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³⁰⁾ 러시아는 이미 발틱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상호관계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CIS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환시세 안정을 필요로 하지만, 우선적으로 금융위기가 극복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급속한 인플레이션에서 환율안정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VI. CIS 국가간 지불 및 결제관계 발전의 諸 유형

국가화폐들이 도입된 후 CIS 국가간 결제에 러시아 루블과 경화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각국은 루블과 경화부족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더나 청산거래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간 결제제도의 미비로 인해 CIS 국가간교역 및 경제관계는 더욱 축소되었다. 또한 쌍부결제의 한계로 인해 CIS의 제 삼국과의 교역시 결제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결제메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CIS 국가간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결제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쌍무지불협정; 국가간은행; 지불동맹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1) 쌍무지불협정

현재 CIS국가들은 쌍무지불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재료및 생산품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처럼 국가간 쌍부협정에 기초한 결제방식을 계속

28) Деловой мир, 1994년 5월 26일.

29) Деловой мир, 1993년 12월 1일.

30) Погосов И.А., "Трансформация взаиморасчетов в СНГ", *Проблем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3, 1994, pp. 106-107.

사용하고 있다. 2차대전후 1945년-1950년의 5년간 서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협정하에 교역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교역신장 및 화폐태환화를 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³¹⁾ 그 외의 사례로는 루블, 국가화폐 및 경화로 결제가 이뤄지는 러시아-발틱국간의 청산협정이 있다.

쌍무협정의 잇집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기업과 상업은행들은 국가간 결제에서 국가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자간 결제제도 설립의 기반이 되며, 국가통화의 태환화를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국립은행은 수입자들에게 외환을 배각하고, 은행들 역시 수출자로부터 받은 외화를 국내화폐로 교환해준다. 그렇지만, 국가통화간의 환율결정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IS국가들은 상호 화폐정책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반면 쌍무청산은 교역신장을 저해하고, 주요 상품들과 상품群을 균등화시키는 바터를 촉진시키며, 국내 및 세계가격과 다른 인위적인 협정가격을 형성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립은행은 늘어나는 업무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결제도 매우 느리게 처리한다. 은행간 협정에 따라 커레스계좌를 통해 상업은행이 결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업은행은 규모가 작고 기술설비, 지점망,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상업은행의 결제처리능력은 상업은행들간 및 청산소간에 커레스계좌망을 발전시킴에 따라 증대할 것이다. 상업은행의 금융력이 성장하고, 커레스계좌가 증대되고, 전산망이 확대됨에 따라, 국립은행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결제비용도 낮아질 것이다.³²⁾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다자간 청산을 위한 조건과 CIS 국가통화의 상호태환을 위한 조건이 점차 형성될 것이다.

2)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

CIS 경제공간에 다자간 청산을 위한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ISB)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1992년 10월에 비쉬렉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3개월후인 1993년 1월 민스크회담에서 CIS국 지도자들은 ISB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ISB는 루블존 붕괴로 인해 파생된 문제, 국가화폐들의 비태환성 및 효율적인 결제제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31) *Ibid.*, p. 81.

32) Порогов И.А., *Op. cit.*, pp. 103-104.

것이다.

ISB의 주요기능은 국가간 청산결제를 수행하는 것이다.³³⁾ ISB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발틱국을 제외한 10개 설립회원국에게 청산업무를 제공하기로 했다. 非구소연방 국가를 포함해서 독자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ISB에 커레스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동 계좌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지불이 이뤄진다.

ISB의 결제 매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각 거래는 수입국들의 중앙은행이 ISB에 송부한 지불주문서(payment orders)에 기초하여 다자간에 이뤄지고, ISB가 지불주문서를 수령한 날자의 환율로 ISB 장부에 기재될 것이다. 清算(Netting)은 매일 이뤄진다. ISB는 적자가 늘어날 경우에 경화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국 수입과 관련된 수령증서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은 이 사항을 통보받고, 적자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하게 된다.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발생하게 된다.

잔고정리(Netting and Tallying)는 매일 이뤄지는 반면, 결제는 매 15일마다 이뤄질 것이다. 회원국들은 ISB에 대해 한달치 수출수령액에 상당하는 누적적자(Cumulative debt)를 가질 수 있다. 개정된 3월의 제안에 따르면 ISB의 자본은 50억루블³⁴⁾이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2000억루블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대량의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들이 곧 그들의 신용을 소진시키고, ISB제도를 경화결제제도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었다. 계좌가 경화가 아닌 루블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ISB의 루블채무에 대한 실질이자율은 러시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게다가, CIS 국가간 결제에 루블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ISB의 제안은 러시아 안정화에 장애가 된다.³⁵⁾

33) 다자간 청산업무를 위해서는 사전 설립자본이 형성되어야하고 다자간에 어느 정도 국제수지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일시적인 적자보전용 신용을 조성하고, 통화조절법규를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시세를 유지하고, 통화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1994년 2월 3일.

34) 러시아는 설립자본의 50%인 25억루블을 납입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총교역량의 비중에 따라 납입했다.

35) Barry Eichengreen, "A Payments Mechanism for the former soviet union: Is the EPU a relevant precedent?",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No.824. August

1993년 ISB 설립 결정이래 ISB의 기능이 실현되지 못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CIS 국가들이 계속 러시아로부터 값싼 신용원조와 원유를 얻는데만 관심이 있었다는데 있다. 대부분 CIS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실제 효율적인 다자간 결제제도를 설립하는데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CIS 국가들은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ISB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다른 CIS 국가들에 대해 교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ISB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³⁶⁾

3) 지불동맹

1993년 12월 이래 ISB설립을 위한 작업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1일 CIS국가간에 지불동맹형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지불동맹은 비태환성 화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에 의해 형성되는 중앙 집중된 다자간 청산제도이다.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회원국들은 국가간 결제에 소요되는 경화를 절약할 수 있다.³⁷⁾ 현재 CIS국가들은 CIS국가간 교역에 적합한 다자간 결제메카니즘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과거 EC의 경험을 차용하는 과정에 있다. 물론 현재 CIS 각국의 경제상황이 발달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갖추었던 1945년 전후의 서유럽 경제상황과는 크게 다르지만, 초기 EC의 경험은 CIS 국가간 상호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⁸⁾

지불동맹의 개략적인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참가국들은 공동의 회계

1993. pp. 49-51.

36) Constantine Michalopoulos and David G.Tarr, "Trade in the New Independent States", *Studies of Economies in Transformation*, The World Bank, 1994. p.231.

37) *Коммерсант*, No 10, 21 марта 1995.

38) 유럽지불동맹(European Payments Union:EPU)의 초기 과제중의 하나는 단기간에 수지균형을 이뤄야 하는 쌍무무역협정의 단점으로 인해 교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쌍무주의로 부터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려면 어느정도 경제안정화가 사전 달성되어야만 했다. 동시에, 이러한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려면 회원국간 유럽통화의 완전이동을 보장하는, 단기신용을 제공하는 적합한 유럽역내 지불협정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1950년 7월 EPU가 작동함으로써 충족되었다. 1950년 EPU설립이래 서유럽 국가들은 다자간 기초하에 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크게 신장시켰다. 1958년 12월 27일부로 모든 회원국들은 외부 태환성을 회복했다. EPU는 무차별 원칙하에 다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 지불메카니즘으로 고안되었다.(OECD, "European Payments Union", Paris, 1959. pp. 13-17.)

단위에 동의해야 한다. 매년 회원국이 지불동맹내 다른 회원국에게 수출할 때마다, 수출액은 내변(credit)에 기입되고, 수입할 때마다 차변(debit)에 기입된다. 결제메카니즘 회원국들에 대한 대차관계는 매 회계기간말에 정산될 것이다. 적자국은 信用을 인출함으로써 동맹에 대한 일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³⁹⁾ 지불동맹은 적자인 회원국이 대부를 갚기 위해 곧 흑자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회원국들에게 적자를 보전토록 신용을 제공한다.⁴⁰⁾

현재 지불동맹형성에 관한 협정이 이뤄진 상태지만 세부적인 실행 메카니즘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 CIS국가들은 서로 경제발전 수준 차이가 현저하고, 대부분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 단계에 있지만, CIS국가들간의 지불동맹형성에 관한 협정은 경제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실제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Ⅶ. 결론

루블존의 안정은 대부분 러시아 경제와 루블의 안정화에 달려있었다.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는 통화권자들의 정책을 고수했지만, 생산을 증대시키지 못했고 긴축 화폐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루블존은 강화되지 못했고 루블의 기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루블존은 대부분 러시아의 화폐정책에 따라 형성되고 있고 다른 CIS 국가들이 이 과정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⁴¹⁾

실제 CIS 국가들은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및 원재료를 지가로 구매하고, 저렴한 신용을 제공받는데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접 CIS 국가들의 루블사용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는 이러한 희망을 앗아갔고, 실제 새로운 형태의 루블존 협정도 이행되지 못했다.

루블존을 부활시키려 했던 러시아의 구상은 각국이 국가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CIS국가들은 화폐, 금융분야에서 자국의 경제주권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는 그 어떠한

39) 청산동맹에서는 적자국들이 지불동맹과 달리 적자보전을 위해 경화를 지불해야 한다.

40) Barry Eichengreen, *Op. cit.*, p. 6.

41) Bakovetskii O. D., Kochetov E. G., and Smitienko B. M., "Credit-Monetary and Payments Relations between the CIS Countries: Problems of Establishment."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5 No.2 1994. p. 139.

CIS 국가도 러시아의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화폐정책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CIS 국가들간의 화폐제도 통합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중반까지 사실상 루블존 붕괴과정이 끝나면서 구소연방공화국에서 국가화폐의 도입이 완료되었다.⁴²⁾ 화폐도입을 위한 제반여건이 될 성숙한 여건속에서 화폐를 도입함으로써 CIS 국가들의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은 아직까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상태이고 국가통화의 환율은 실제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율은 단지 설제용으로 정해지고 있다.

새로 도입된 CIS 국가들의 통화는 단기간 내에 상호 결제되거나 대환될 수가 없다. 따라서 CIS 국가화폐간의 비대환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결제메카니즘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는 다른 CIS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른 CIS 국가에서의 경제혼란을 원하지 않고 효율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CIS 국가간 교역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CIS내의 경제상황에 상응한 결제및 지불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CIS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정부간 쌍무교역과 바터거래가 현재 CIS 국가간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당분간은 CIS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 및 지불관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쌍무협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다자간 청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쌍무교역량을 점차 축소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CIS 국가 경제주체들간에 직접적인 상업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자간 결제제도를 위한 기초가 형성될 것이다.

1994년 10월에 체결된 지불동맹형성에 관한 협정은 CIS 국가간에 보다 진전된 경제협력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불동맹에서의 러시아의 안정된 경제개혁수행은 다른 회원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부문에 걸친 러시아의 주도적 입장때문에 지불동맹형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변화에 따라 동맹형성의 진전속도가 현저히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CIS 국가들은 지불동맹같은 다자간 결제제도 도입시 상호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럽통합의 경험중 컨센서스와 타협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CIS 국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CIS국가간의 다자간

42)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1994 II, прогресс-академия p. 49.

결제메카니즘不在로 인한 더이상의 교역관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불동맹을 실현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개혁과정상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대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CIS 각국의 금융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Финансов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СНГ
: специфика и перспектива развития

Хон Сон Вон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дается оценка нынешнего состояния финансов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СНГ, особен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их денежно-расчет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анализируются возможные типы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расчет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Общепризнанно, что глубо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странах СНГ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связан с распадом СССР, резком сокращением объемов меж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торговли, разрывом кооперационных связей. Одним из последствий этих процессов является разрушение единого рубле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соб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денежных систем в результате введения своих валют. Очевидно, что без налаживания адекватных денежно-расчет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евозмож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ые хозяйственные связи, двигаться по пути интеграцио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ывш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актуальнейшей задачей в плане денежно-финанс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упорядочение платежно-расчет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оздание платежного союза.